

2009년중 금융·외환시장 동향

2009년중 금융·외환시장은 2008년 4/4분기중의 금융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금리가 크게 낮아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환율도 하락하였다. 아울러 금리, 주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외화차입여건도 개선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시장금리가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2008년 4/4분기중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던 국고채 수익률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수급요인 등으로 연중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주가는 글로벌 증시의 회복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순유입되면서 대폭 상승하였다.

외환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3월초 1,570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외환거래 규모도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점차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2010년중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실물경제의 회복세도 뚜렷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요 선진국의 본격적 경기회복 지연 소지, 주요국의 재정적자 확대 및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실 등이 금융·외환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I. 금융시장

II. 외환시장

III. 종합평가

I. 금융시장

연중 금융시장은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주가는 상승하는 등 전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시장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2008년 4/4분기중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던 국고채 수익률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수급요인 등으로 연중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주가는 글로벌 증시 회복과 함께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금융기관 수신의 경우 은행 수신이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둔화된 가운데 자산운용사 수신은 펀드환매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기업자금사정은 신용보증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조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가계부문의 경우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연체율은 전년에 이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장금리 상반기 대폭 하락 이후 완만한 상승)

장단기 시장금리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총 3.25%p)와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연말 91일 만기 CD 유통수익률은 전년말보다 107bp 낮은 2.86%, 91일 만기 CP 유통수익률은 340bp 하락한 3.09%를 기록하였다. 연말 3년 만기 회사채(AA-) 유통수익률도 5.53%를 기록하여 전년말대비 219bp 하락하였다.

2008년 4/4분기중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던 국고채 수익률은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수급요인 등으로 연중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연말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4.41%를 기록하여 전년말 대비 100bp 상승하였다.

은행 여수신금리도 단기시장금리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연초 빠르게 하락한 후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지속하다가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림 1)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장단기금리차 확대 및 신용스프레드 축소)

장단기금리차(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익일물 콜금리)는 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국고채 수익률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수급요인 등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회사채의 리스크프리미엄을 반영하는 3년 만기 회사채(AA-등급)와 국고채간의 금리차는 2008년 12월중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인 4.65%p에서 6월초 리먼사태 이전 수준인 1%p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다. 6월 이후에는 연말까지 1.2%p 내외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림 2〉

장단기금리격차 추이



〈표 1〉

주요 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월말 기준)

(단위 : %, %p)

	2008.12	2009.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고채(3년)	3.41	3.59	3.82	3.94	3.59	3.83	4.16	4.26	4.38	4.39	4.44	4.10	4.41
회사채(3년, AA-)	7.72	7.29	6.60	6.13	5.29	4.98	5.39	5.68	5.61	5.53	5.58	5.21	5.53
CD(91일)	3.93	2.96	2.49	2.43	2.41	2.41	2.41	2.41	2.57	2.75	2.79	2.79	2.86
CP(91일)	6.49	3.99	3.19	3.12	3.04	2.99	2.80	2.74	2.84	2.92	2.98	2.96	3.09
콜(1일)	3.02	2.41	1.87	1.73	1.85	1.96	1.96	1.95	1.99	2.00	2.01	2.01	2.01
은행 수신금리 ¹⁾	5.58	4.16	3.23	2.97	2.88	2.84	2.96	2.92	3.07	3.33	3.51	3.54	3.64
은행 여신금리 ²⁾	6.89	5.91	5.57	5.50	5.40	5.42	5.47	5.53	5.61	5.82	5.88	5.87	5.81
장단기금리차 ³⁾	0.39	1.18	1.95	2.21	1.74	1.87	2.20	2.31	2.39	2.39	2.43	2.09	2.40
회사채프리미엄 ⁴⁾	4.31	3.70	2.78	2.19	1.70	1.15	1.23	1.42	1.23	1.14	1.14	1.11	1.12
회사채신용등급별 금리차 ⁵⁾	4.34	5.03	5.91	6.06	6.20	6.09	6.06	6.09	6.15	6.19	6.17	6.06	6.03

주 : 1) 기간중 저축성수신 신규취급분 기준

2) 기간중 신규취급분 기준,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3) 국고채유통수익률(3년)-콜금리(1일)

4) 회사채유통수익률(3년, AA-)-국고채유통수익률(3년)

5) 회사채유통수익률(3년, BBB-)-회사채유통수익률(3년, AA-), 3개 민간신용평가사 평균수익률 기준

(광의통화 증가율 하락, 협의통화 증가율 상승)

연중 통화증가율은 광의지표가 전년보다 하락한 반면 협의지표는 상승하였다. M2 증가율은 전년의 14.3%보다 낮은 10% 초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정부 및 국외부문의 통화공급이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경기위축에 따른 기업의 차입수요 둔화로 민간신용 공급이 저조하였던 데 주로 기인한다. 시기별로는 4월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후 10% 수준에서 등락하였다. 한편 Lf 증가율도 전년의 11.9%보다 낮은 8% 내외로 추정된다.

반면 M1 증가율은 시중금리 하락 및 자금 단기화 현상 등으로 지난해의 1.1%보다 크게 높아진 16% 초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008	2009				
		연중 ^a	1/4	2/4	3/4	4/4 ^e
Lf	11.9	8내외	8.8	7.3	7.8	7중반
M2	14.3	10초반	11.5	10.1	9.9	9후반
M1	1.1	16초반	10.8	17.6	18.9	17후반
본원통화	7.7	18.1 ^p	26.5	18.7	15.2	12.6 ^p

(은행 수신 증가세 둔화 및 자산운용사 수신 감소)

금융기관 수신동향을 보면, 은행 수신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자산운용사 수신은 감소로 반전되었다. 은행 수신에 있어서는 펀드환매 자금과 MMF 인출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수신금리 인하로 정기예금 유입이 둔화되고, 은행의 여유자금 증대로 CD 등 단기시장성수신이 부진하였다. 한편 자산운용사 수신을 보면, 주가반등으로 그간 손실의 상당부분을 회복한 투자자의 펀드환매가 늘어나면서 주식형펀드가 감소로 반전되었으며, MMF도 금리경쟁력 저하에 따른 개인자금 인출 등으로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금전신탁도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이 밖에 중금사 수신 및 우체국예금도 감소로 반전되었다. 한편 증권사 고객 예탁금은 주가상승과 주식투자 대기자금 유입의 영향으로 증가로 전환되었다.

〈표 3〉

금융기관 수신 추이

(기간중 증감)

(단위 : 억원)

	2008	2009				
		연중 ^p	1/4	2/4	3/4	4/4 ^p
은행수신	1,043,406	566,587	135,160	273,607	293,762	-135,942
실세요구불예금	14,952	90,457	32,015	79,568	-19,229	-1,897
저축성예금	722,360	793,367	198,333	138,559	264,970	191,505
(정기예금)	629,799	368,536	46,470	-46,836	214,211	154,692
(수시입출식)	103,108	379,511	129,763	177,193	31,401	41,153
단기시장성수신 ¹⁾	-5,683	-102,705	-68,563	66,566	32,560	-133,267
금전신탁	-11,046	-34,412	-50,669	-2,778	264	18,771
특정금전신탁	-22,380	-64,548	-43,060	-7,933	-562	-12,993
자산운용사수신 ²⁾	630,066	-298,935	261,799	-137,629	-282,355	-140,750
주식형수익증권	238,628	-146,678	-6,567	-30,473	-60,797	-48,841
혼합형수익증권	-54,098	-81,497	-32,418	-19,397	-16,886	-12,796
채권형수익증권	-105,187	178,761	20,227	96,968	49,360	12,206
MMF	421,650	-203,140	295,401	-175,498	-249,682	-73,361
신종펀드 ³⁾	129,073	-46,381	-14,844	-9,229	-4,350	-17,958
종금사수신	4,707	-26,052	6,857	-30,095	-18,282	15,469
발행어음	17,520	-24,530	10,947	-32,491	-13,476	10,490
CMA	-12,813	-1,522	-4,090	2,396	-4,806	4,979
우체국예금	69,634	-40,922	-4,986	-9,420	-9,332	-17,184
증권사 고객예탁금	-2,682	28,439	37,016	785	11,412	-20,774

주 : 1) CD, RP, 표지어음
 2)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기준
 3) 파생상품펀드 등 간접투자펀드 운용액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기업자금사정 개선)

연중 기업자금사정은 신용보증 확대 및 대출만기 연장 등 일련의 중소기업 지원 조치, 대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연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기업의 차입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대기업대출은 회사채 발행 증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로 반전되었다. 중소기업 대출도 우량기업 및 정부보증대출 위주로 연중 증가세를 이어갔으나¹⁾ 증가폭은 전년에

1) 은행의 부실채권 목표비율(2009년말 1.0%) 달성을 위한 대규모 상각·매각(12월중 3.9조원) 등을 감안하면 4/4분기 중에도 중소기업대출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비해 축소되었다.

회사채 발행은 고금리를 겨냥한 자산운용사 등의 매입수요 증가,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 완화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주식시장 회복에 따라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도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한편 어음부도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표 4> 기업 자금조달 추이
(기간중 증감) (단위 : 억원, %)

	2008	2009				
		연중 ¹⁾	1/4	2/4	3/4	4/4 ²⁾
은행대출 ¹⁾	782,596	144,668	108,661	26,226	83,321	-73,540
(대기업)	302,583	-51,914	16,000	-45,793	19,873	-41,995
(중소기업)	480,012	196,582	92,661	72,019	63,448	-31,546
직접금융	259,382	351,040	221,786	63,464	19,809	45,981
(회사채순발행 ²⁾)	84,024	326,128	159,581	102,658	36,884	27,005
(CP순발행 ³⁾)	134,220	-61,647	55,985	-64,685	-38,271	-14,677
(주식발행 ⁴⁾)	41,138	86,559	6,219	25,491	21,196	33,653
어음부도율 ⁵⁾	0.03	0.03	0.04	0.03	0.02	0.03
기업대출 연체율 ⁶⁾	1.3	1.9	2.1	2.1	1.8	1.6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⁶⁾)	1.5	2.2	2.5	2.4	2.0	1.8

주 : 1) 신탁대출 포함
 2) 일반기업 공모 회사채 기준(ABS 제외, Primary CBO 편입분 포함)
 3) 증권·중금사 및 은행 신탁 취급분
 4)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기준(금융업 제외), 현물출자 제외
 5) 금액기준, 전자결제액 조정후
 6) 기간중 평균(분기말월 제외)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가계대출 증가세 소폭 둔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으나 신용대출이 줄어들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²⁾ 주택담보대출은 상반기중 부동산규제 완화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

2) 주택담보대출에 주택금융공사 보급자리론 및 은행 대출채권 양도 실적을 포함하면 2009년중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30,5조원으로 전년의 31.5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하반기중에는 DTI규제 강화(9.7일 시행),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은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 은행의 담보대출 위주의 자금공급 등으로 인해 감소로 반전되었다.

〈표 5〉 은행 가계대출 추이
(기간중 증감) (단위 : 억원)

	2008	2009				
		연중 ¹⁾	1/4	2/4	3/4	4/4 ²⁾
가계대출 ¹⁾	250,105	201,131	31,284	78,996	46,326	44,525
(주택담보대출) ²⁾	180,550	254,101	76,196	71,002	57,257	49,646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363	-44,640	-40,684	11,062	-10,563	-4,455

주 : 1) 신탁대출 포함
2) 신탁 제외,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한편 은행 및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반기중 소비심리 위축 및 고용상황 개선 지연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소비심리 개선 등에 따라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연중으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6〉 가계신용 연체율 추이
(단위 : %)

	2008	2009					
		연중 ¹⁾	1/4	2/4	3/4	4/4 ²⁾	
은행 ¹⁾	0.7	0.7	0.8	0.7	0.6	0.6	
신용카드사 ²⁾	은행경영사	1.7	2.2	2.5	2.4	2.2	1.9
	전업사	3.0	2.7	3.3	3.1	2.3	2.0

주 : 1) 기간중 평균, 분기말월 제외
2) 은행경영사는 기간중 평균(분기말월 제외), 전업사는 기간중 평균(단, 2009년 연중 및 4/4분기는 각각 1~11월중 및 10~11월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주가 대폭 상승)

연중 주가는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확산,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코스피지수는 연초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으로 3월 2일 연중 최저치(1,018.8)를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외국인 매수 확대 등으로 상승추세가 이어졌다. 다만 5~6월, 10~11월중에는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 세계경기 회복지연 가능성, 두바이 국영개발회사의 채무상환 유예선언(11.26일) 등으로 일시 조정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코스피지수는 연말 현재 1,682.8로 전년말의 1,124.5보다 49.7% 상승하였다.

코스닥지수는 1~5월중 코스피지수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반등세를 나타내며 5월 20일 연중 최고치(562.6)를 기록하였으나 6월 이후에는 개인투자자의 차익실현 등으로 코스피지수와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연말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말 코스닥지수는 전년말 332.1 대비 54.7% 상승한 513.6을 기록하였다.

한편 주식거래규모(일평균 거래대금 기준)는 주식시장 회복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그림 4〉

코스닥지수 및 거래규모 추이



〈표 7〉

주식시장 동향 추이

	2008	2009				
		연중	1/4	2/4	3/4	4/4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지수(기말)	1,124.5	1,682.8	1,206.3	1,390.1	1,673.1	1,682.8
(평균)	1,529.5	1,429.0	1,145.2	1,371.3	1,564.0	1,620.2
거래량(일평균, 억주)	3.6	4.8	4.8	6.4	4.8	3.3
거래대금(일평균, 조원)	5.2	5.8	4.7	6.9	6.6	4.8
〈코스닥시장〉						
코스닥지수(기말)	332.1	513.6	421.4	485.2	505.9	513.6
(평균)	525.6	473.6	375.4	510.4	511.4	492.4
거래량(일평균, 억주)	5.0	7.7	6.7	9.2	7.9	7.0
거래대금(일평균, 조원)	1.2	2.1	1.6	2.7	2.3	1.8

자료 : 한국증권전산

매매동향을 투자주체별로 보면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국내 기업실적 호전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³⁾는 전년의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되었다. 기관투자가는 자산운용사의 펀드환매, 연기금의 차익실현 매각 등으로 전년의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표 8〉

투자주체별 주식순매수 추이

(단위 : 조원)

	2008	2009				
		연중	1/4	2/4	3/4	4/4
외국인	-35.9	32.3	0.6	10.5	15.2	5.9
기관투자가	23.9	-27.1	-0.1	-13.6	-11.6	-1.7
(자산운용사)	-2.1	-21.9	-3.0	-8.7	-7.7	-2.5
개인	4.2	0.3	-0.6	4.8	-1.6	-2.3

자료 : 한국증권전산

II. 외환시장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동유럽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우려로 3월초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외환거래 규모는 1~4월중 환율이 크게 등락함에 따라 위축된 모습을 보였으나 5월 이후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외환 공급우위기조 전환)

연중 외환수급상황을 보면 전년의 수요우위기조가 큰 폭의 공급우위기조로 전환되었다. 이는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를 지속한 데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자본수지도 대폭 흑자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3)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대비)은 2008년말 27.2%에서 2009년말 30.4%로 상승하였다.

외환보유액도 국제수지 흑자, 운용수익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외화유동성 공급자금 만기도래분의 회수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연말 외환보유액은 전년말보다 688억달러 증가한 2,70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9〉

국제수지¹⁾ 및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달러)

	2008	2009				
		연중 ^p	1/4	2/4	3/4	4/4 ^p
경 상 수 지	-57.8	411.5	86.2	131.0	104.0	90.4
상 품 수 지	56.7	521.0	83.1	175.8	147.0	115.2
자 본 수 지	-500.8	248.1	-14.0	86.8	144.0	31.3
직접투자수지	-156.3	-77.0	-20.5	-1.7	-21.4	-33.4
증권투자수지	-24.1	497.1	35.3	167.4	199.1	95.2
기타투자수지	-173.8	-118.3	12.8	-75.7	-22.6	-32.8
외 환 보 유 액 ²⁾	2,012.2	2,699.9	2,063.4	2,317.3	2,542.5	2,699.9
(증감액)	-610.0	687.7	51.2	253.9	225.1	157.5

주 : 1) 2009년 연중 및 4/4분기는 각각 1~11월중 및 10~11월 기준
2) 기말기준

(원화환율 상당폭 하락)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전년말에 비해 상당폭 하락하였다. 연초에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원화환율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3월 2일에는 연고점인 1,570.3원까지 상승하였다. 3월 중순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면서 5월 11일 1,237.9원까지 빠르게 하락하였다. 5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는 경상수지 흑자 등 하락요인과 글로벌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상승요인이 교차하면서 1,230~1,280원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9월 중순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예상에 따른 글로벌 미달러화 약세 등으로 11월 18일 1,153.0원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유럽국가들의 신용위험 증가로 글로벌 미달러화가 강세로 반전됨에 따라 소폭 상승하여 연말 현재 원화환율은 1,164.5원으로 전년말대비 8.2% 절상되었다.

한편 원화의 대엔화 환율은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연중 소폭 상승함에 따라 대미달러

화 환율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연말 현재 원화의 대엔화 환율은 100엔당 1,264.7원(외환은행 최종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으로 전년말에 비해 10.4% 절상되었다.

〈그림 5〉

환율 추이



〈표 10〉

주요 통화의 대미달러화 환율 변동률

(단위 : %)

	한국 원화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호주 달러화	대만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2007년중	-0.7	6.1	10.5	1.3	16.9	11.0	0.5	6.7
2008년중	-25.7	23.9	-4.2	-26.4	-18.1	-19.5	-1.2	-0.5
2009년중	8.2	-2.2	2.5	10.6	15.7	27.3	2.6	3.0

주 : 1) 해당기간중 절상(+) 및 절하(-)율

2) 원화는 서울외환시장 종가, 엔화 및 기타 아시아국 통화는 각각 로이터 및 블룸버그의 동경시장 가격 기준, 기타 통화는 로이터의 뉴욕시장 가격 기준

환율(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의 변동성도 글로벌 금융불안이 진정되면서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연평균으로는 전일대비 변동률과 일중 변동률이 각각 0.71% 및 1.10%를 기록하였다.

〈표 11〉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 변동성¹⁾ 추이

(단위 : %, 원)

	2008	2009				
		연중	1/4	2/4	3/4	4/4
전일대비 변동률 ²⁾	0.99	0.71	1.17	0.78	0.51	0.41
(전일대비 변동폭)	12.0	9.4	16.6	10.1	6.3	4.9
일중 변동률 ³⁾	1.50	1.10	1.83	1.32	0.68	0.61
(일중 변동폭)	18.3	14.6	26.2	17.1	8.4	7.2

주 : 1) 기간중 평균

2) [(금일 증가 - 전일 증가)의 절대값 / 전일 증가] × 100

3) [(일중 최고가 - 일중 최저가) / 당일 가중평균환율] × 100

(외환거래규모 점차 확대)

연중 은행간 외환거래규모(중개거래 기준)는 일평균 212억달러로 전년의 231억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이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외환거래가 위축되었으나 이후 환율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거래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거래형태별로 보면, 현물환은 전년의 78억달러에서 58억달러, 파생금융상품은 52억달러에서 44억달러, 선물환은 9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외환스왑은 92억달러에서 105억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외환거래 중 현물환, 파생금융상품 및 선물환의 거래비중은 낮아진 반면 외환스왑의 거래비중은 절반 수준까지 높아졌다.

〈표 12〉

은행간 외환거래¹⁾ 규모 추이

(일평균 기준)

(단위 : 억달러)

	2008	2009				
		연중	1/4	2/4	3/4	4/4
현 물 환	78.1	58.3	47.6	63.4	58.5	63.4
선 물 환	9.1	4.6	5.4	5.9	5.0	2.2
외환스왑	92.3	105.3	91.8	105.5	109.8	113.3
파생상품 ²⁾	51.6	43.7	39.9	40.8	45.8	48.1
합 계	231.1	211.9	184.7	215.6	219.1	227.0

주 : 1) 외환중개회사를 통한 은행간 원/달러화 거래 기준

2) 통화스왑 및 옵션 등

(순대외채권 증가)

2009년 9월말 현재 대외채무는 전년말에 비해 196억달러 증가한 3,97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만기별로는 1년 이하의 단기채무가 36억달러 감소한 반면, 장기채무는 232억달러 증가하였다. 외환보유액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09년 9월말 현재 57.5%로 전년말의 74.5%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다.

한편 대외채권은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09년 9월말 현재 대외채권은 4,005억달러로 전년말보다 526억달러 증가하였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차감한 순대외채권은 전년말 마이너스 301억달러에 비해 331억달러 증가한 3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순대외채무국에서 순대외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

〈표 13〉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추이

(단위 : 억달러,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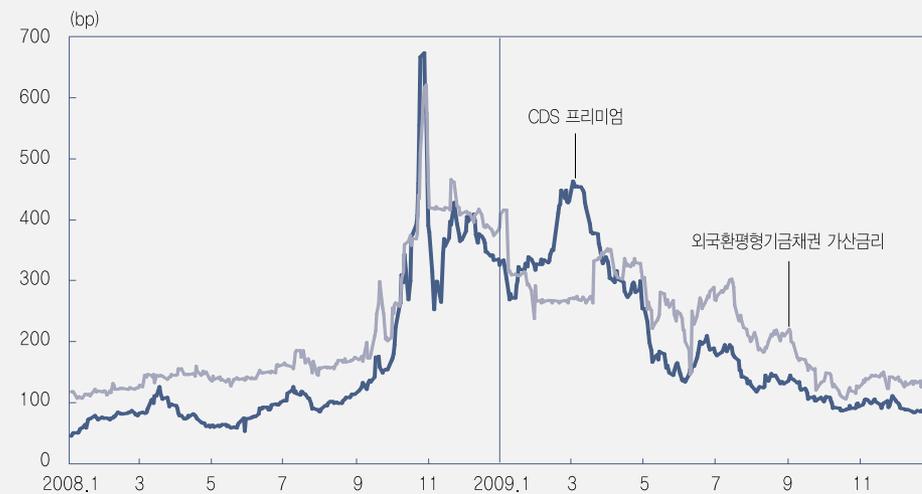
	2007년말	2008년말(I)	2009.9월말(II)	2009.1~9월중 증감(II-I)
대외채무(A)	3,831.5	3,779.4	3,975.0	195.6
장기 ¹⁾	2,229.0	2,280.5	2,512.2	231.7
	(58.2)	(60.3)	(63.2)	
단기 ¹⁾	1,602.5	1,498.9	1,462.8	-36.1
	(41.8)	(39.7)	(36.8)	
대외채권(B)	4,205.6	3,478.8	4,004.9	526.1
순대외채권(B-A)	374.1	-300.6	29.9	330.5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	61.1	74.5	57.5	-17.0

주 : 1) ()내는 대외채무중 비중

(외화차입여건 개선)

연중 외화차입여건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외화표시 채권의 부도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기준)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우려 등으로 3월 2일 465bp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국내경제가 뚜렷이 회복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여 연말에는 87bp까지 낮아졌다.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시 기준이 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2013년 만기 기준) 역시 대체로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1월 5일 417bp에서 12월말 134bp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6〉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 JP Morgan, Bloomberg

Ⅲ. 종합평가

2009년중 금융·외환시장은 지난해 4/4분기중의 금융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크게 낮아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성은 축소되었다.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하고 변동성은 줄어들었으며 외화차입여건도 개선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시장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대폭 하락하였고,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회복 기대 등을 반영하여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4/4분기중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던 국고채 수익률은 재정확대에 따른 수급요인 등으로 연중 소폭의 오름세가 이어졌다.

통화총량에 있어서는 M2 증가율이 경기위축에 따른 기업의 차입수요 둔화로 민간신용 공급이 저조함에 따라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M1 증가율은 시중금리 하락 및 자금단기화 현상 등으로 크게 높아졌다. 한편 금융기관 수신은 은행 수신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자산운용사 수신은 펀드환매, MMF 자금 인출 등으로 감소로 반전되었다.

기업자금사정은 신용보증 확대 및 대출만기 연장 등 일련의 중소기업 지원 조치, 대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대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은 차입수요 감소, 회사채 발행 증대 등으로 인해 감소로 반전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은 우량기업 및 정부보증대출 위주로 연중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회사채 발행은 고금리를 겨냥한 자산운용사 등의 매입수요 증가,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 완화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주식시장 회복에 따라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도 증가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였으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신용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상반기중 부동산규제 완화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하반기중에는 DTI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주가는 글로벌 증시의 회복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순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주식거래규모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외환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3월초 1,570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를 지속하여 연말에는 1,160원대까지 낮아졌다. 연중 외환거래 규모도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점차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대외채권·채무에 있어서는 2009년 1~9월중 기준으로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우리나라는 순대외채무국에서 다시 순대외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 외화차입여건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등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2010년중에도 금융·외환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실물경제의 회복세도 뚜렷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요 선진국의 본격적 경기회복 지연 소지, 주요국의 재정적자 확대 및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실 등이 금융·외환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국 통화재정팀 과장 이병희, 조사역 문지희〉